

C노선 개통시 삼성역까지 15분... 초역세권 단지 매물 거뒀

GTX 노선 따라가보니

금정

C노선 2028년 말 개통 예정
A·B노선 환승역과도 연계돼
힐스테이트금정역 관심 집중
초역세권 기대감에 거래 쏠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금정역 주변에선 트릴플 초역세권이 가능한 ‘힐스테이트금정역’과 10년 전 대장아파트였던 ‘래미안하이어스’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최근 찾아간 경기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금정역’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정역 주변의 대부분 단지에서 매매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몇몇 단지에서는 3년 전에 최고가를 찍은 이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보령제약 공장 부지에 들어선 ‘힐스테이트금정역’은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단지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지난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이다. 전용면적 72~84㎡ 아파트 843가구와 전용면적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가구 규모다.



경기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금정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김대환 기자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C금정역이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초역세권인 단지에선 GTX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 길이의 노선이다. 정부는 지난 1월 C노선을 기존 양주 덕정~수원 노선을 연장해 상단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아산(59.9km)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노선은 오는 2028년 말로 개통이 계획돼 있다. 개통 시 금정역에서 양재

역까지 약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B노선 환승역과 연계돼 강남역, 서울역, 여의도역 등으로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정역 인근에서 산본1동1지구와 금정역 역세권 등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매매물건은 사라지고 전월세 거래만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장 침체기에도 집값 방어가 가능한 대단지 매물에 대한 수요자의 문의 전화가 간간히 오고 거래는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5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

어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떨어졌던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을 기록하며 20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지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다. 군포(-0.04%→-0.06%)의 경우 하락세가 확대되며 23주 연속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난해 9월 전용면적 72㎡가 9억6000만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다. 동년 5월 거래가격(8억7000만원) 보다 9000만원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2644세대의 대단지인 ‘래미안하이어스’는 지난달 전용면적 114㎡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2개월 전 거래가격(11억5000만원) 대비 2500만원 상승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

여행자보험 가입시 귀국 축하금 지급

KB손해보험이 귀국 축하금을 지급한다.

◆ 사고 유무 없이 최대 3만 포인트

KB손해보험은 KB스타뱅킹에서 KB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귀국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귀국 축하금은 KB스타뱅킹에서 K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포인트리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서비스다.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KB포인트리는 KB스타뱅킹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KB해외여행보험은 개인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가족, 친구, 동호회, 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족형으로 가입하면 10%를 추가로 할인한다. 기본, 표준, 고급형 중 원하는 플랜을 선택 후 보장과 보장 금액을 직접 설계하고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지난 18일 인천 인스피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2024 신한라이프 영입대상’ 시상식에서 김순기 전략기획그룹장(오른쪽 네번째)과 베트남 법인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베트남 임직원 초청 비즈니스 트립 진행

신한라이프가 베트남 임직원을 모회사로 초청했다.

◆ 4박 5일 간 ‘비즈니스 트립’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인 임직원들을 모회사로 초청해 ‘비즈니스 트립’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회사의 보험 전문성과 전속채널 운영의 노하우를 베트남 법인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베트남 현지 법인의 본사 임직원과 영업조직 관리자 등 7명을 대상으로 본사 투어, 영업점 교육 참관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개최한 FC채널 영업대상 시상식에도 초청했다.

베트남 법인은 지난 2022년 1월 영업 개시 이후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 모델 ▲판매채널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다. 영업수익은 지난해 216억원을 기록해 2022년 127억원 대비 70.1%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인기 떨어진 체크카드... 애플페이 업은 현대카드만 훨훨

현대카드, 신규 체크카드 212% ↑ 애플페이 사용 MZ·잘파세대 유입

체크카드의 인기가 시들한 추세지만 현대카드는 신규 회원 유치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애플페이에 미리 진입 하면서다. 신용점수가 없거나 낮은 10~20대가 유입된 가운데 향후 신용카드 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카드가 발급한 체크카드는 총 48만6000장이다. 전년 동기(15만6000장) 대비 21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 금액은 1826억56000만원에서 84.65% 증가한 3372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크카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분위기에도 신규 회원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현대카드로 체크카드 회원이 유입된 배경에는 애플페이가 자리 잡고 있다.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MZ세대 및 잘파세대가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가입을 서두른 것이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 상륙한 지난해 1분기 현대카드가 발급한 체크카드는 총 32만2000장이다. 직전 분기 대비 106.4% 늘었다.

체크카드 가입자 중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신과일러’가 다수 포진했을 것이라 분석이다. 당장 신용 판매 확대에 영향을 주기 어렵지만 향후 해당 가입자가 주요 소비층으로 전

환하면 신용카드 가입자와 승인금액을 함께 늘릴 수 있다. 다른 카드사가 애플페이 진입을 고민하는 이유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애플페이 출시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에 이어 하나카드의 체크카드 발급률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카드가 발행한 체크카드는 총 1184만4000장이다. 전년 동기 1092만7000장 대비 8.39% 늘었다. 지난 2022년 7월 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로그’를 출시한 뒤 매분기 체크카드 발급량이 20만장 안팎으로 증가했다. 휴가철이 겹치는 2~3분기에는 각각 25만장, 24만장씩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22~2023년 매분기 체크카드 발급량이 연속으로 줄어든 곳은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다.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비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발급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삼성카드가 발급한 체크카드는 50만장이다. 2년새 20만3000장 줄었다. 아울러 롯데카드의 체크카드는 44만장으로 같은 기간 19만7000장 감소한 상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분기별로 가입률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도 체크카드 마케팅은 줄이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등 월 3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수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한화생명, 인니 ‘노부은행’ 지분 40% 매입

국내 보험사 최초 해외은행업 진출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인 ‘노부은행(Nobu Bank)’ 지분투자를 통해 국내 보험사 최초 해외 은행업에 본격 진출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23일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투자 승인 건’ 안건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리포그룹(Lippo Group)’이 보유한 노부은행의 지분 총 40.0%를 매입하는 것이다.

노부은행은 1990년에 설립됐다. 2023년말 기준 총자산 2조3000억원 규모로 현지 30위권 수준의 중형은행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금융·부동산·유통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운영중인 체계6

위 ‘리포그룹’ 소속으로 현지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번 지분투자로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손·보업을 넘어 은행업까지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인구가 성장중인 인도네시아를 주요거점으로 동남아시아 확장전략을 펼쳐나간다.

향후 한화생명은 자사가 지닌 디지털 역량에 ‘리포그룹’의 은행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단기 내 시장에 안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초기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사가 지닌 디지털 모바일 경험을 빠르게 적용한다. 기존 내방 중심의 전통적 채널에 디지털 뱅킹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채널을 구축해 모바일 기반 영업환경을 확산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명보험상품과 지난해 3월 지분을 매입한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의 손해 보험상품 판매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